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더불어 사는 세상... 혼자 사는 사람 없어

13면에서 계속

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주고 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입는 것도 더불어 같이 입고 먹는 것도 더불어 같이 먹고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돌이켜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고 하느냐, 분명히 찾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느냐 이러겠지요.

전깃줄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면이 전깃줄을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듯이 이것은 서로 주고 받을 때 한 순간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돌이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나에 이어지니 참나에 주고 받은 예가 없단 얘지요. 참나에 주고 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힘이 없이 살고 있다. 힘이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머슴을 살면 집은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니니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주인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대로 했다면 자기 맘대로 한 건 아니죠. 그랬듯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한 잘나잘나마다 이게 따르따르가 아니라 힘이 없이 하게 된단 얘지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 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그것도 힘이 없이 하게 되구요. 남이 주는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힘이 아니라 힘이 실린게 되느냐. 각자 모순을 다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돌이키지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뭐를 줘도 상대방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뿌리와 내 뿌리가 한데 합쳐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의 전원을 끄면 안나오고 전원을 켜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그게 돌이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서투르도 하다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 자꾸 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자체도 용이하게 되고 유유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것은 이 모두를 합류화 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중이든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수만 개가 이 몸 속에 살아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 모습만 보고 내라고 하지 말라 이 겁니다.

이게 참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놓고 생각 없이 '이것 좀 잡혀주세요.' 이라고 했을 때도 돌이키지 못하면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나 받는 사람이나 돌이키지 않으면 주고 받은 것이 저절로 스스로에게 맺어지고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인과 응보를 모르니까 이른 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전제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미나 벌레들의 살림살이 보셨어요? 벌레 등우리가 하나 있는데 만약 삼로 딱 흙을 파게 되면 그냥 딱 땅에 갈라지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다리가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숨이 막혀 죽기도 하죠. 이런 벌레들의 생활이나 우리 살림살이나 뭐가 다르니까.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계를 받을 때 이런 얘

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저 이런 벌레들이 꾸역꾸역 나오면 그냥 두면 좋을 걸 아무 생각없이 그냥 탁 쳐서 죽이고 일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헤어지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자기 문제로 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러죠.

그때 농고서는 그걸 고봉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죠. 자기가 고봉을 받아보면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진화되는 과정이며, 살아있으면서도 진화가 되고, 생선이 되고, 길을 찾고, 걸림없이 길을 갈게 될 때 비로소 자

나라 자기가 한 것 대로 속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탓을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공양주로 계시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자손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벌써 10년도 넘었나 봅니다. 어느 해에 큰 비가 와서 산이 전부 몽그러지고 터지고 해서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자다가 전부 죽었어요. 산사태가 나서 눈이 그냥 다 매꾸어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나왔죠. 그랬는데 그 집하고 그 집 논란 그냥 됐어요. 판 데는 다 몽그러지고 그랬는데 그 집만 그냥 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모든게 인연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탓 할게 없어요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돌이키지 생각한다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죽어도 견디는 거고 살려도 견디는 겁니다. 사람이 한철만 살고 끝나면 상관없지만 한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할 때에 어떤 때는 종자가 덜 생기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집은 조그만데 식구가 너무 많게 되면 집이 터질 것 같으니 종자를 열 개 스무 개를 낳아야 될 텐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낳는다 이런 것도 되구요. 이런 것도 실천입니다. 모두가 실천이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죠. 자식을 낳아 놓기만 하면 자식인 줄 알지 말라구요. 이걸 원수도 같이 태어나고 악연도 같이 태어나니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못 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어느 후성을 찾아갔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이 허황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어느 집이라고 합시다.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말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뜻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그런 데를 찾아갈 때는 그쪽의 모습대로 찾아가야죠. 여자의 모습으로 그냥 찾아가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해가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공부 안하는 사람들이 거길 찾아갔는데도 받아들일 줄 알고 '너 여기 다시 오면 죽어.' 이라고 도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치가 바로 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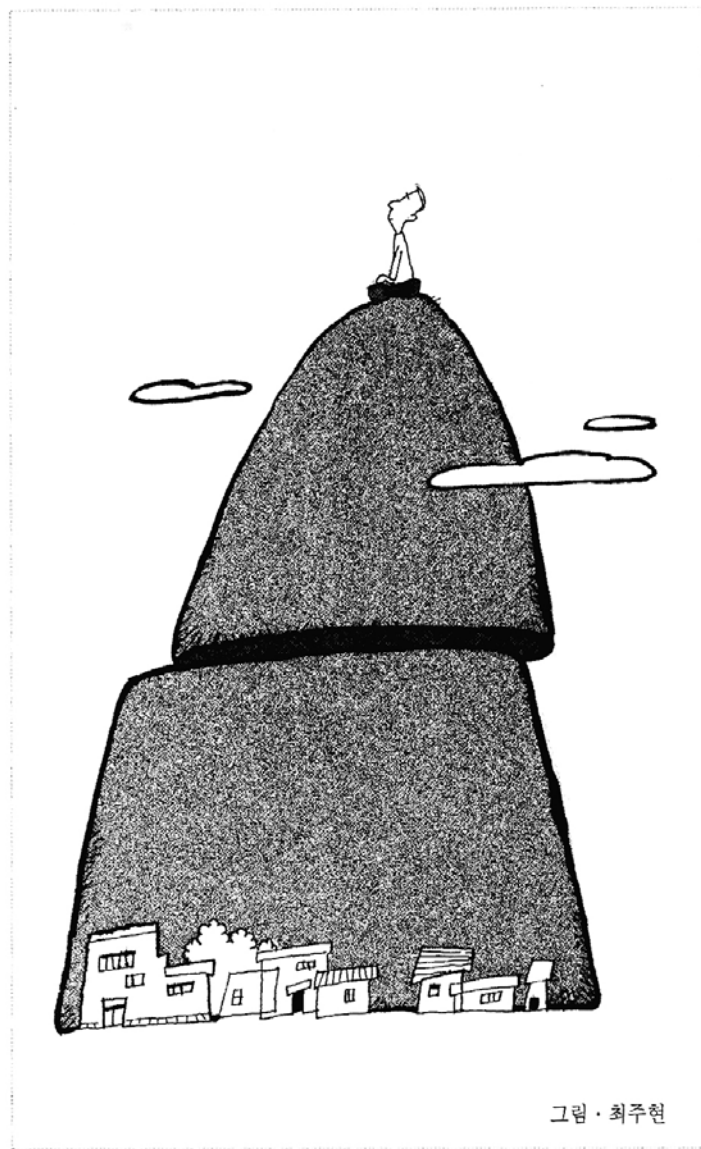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음에는 내가 없는 데가 없느냐라 이랬기 때문에 차원이 있구요. 또 고생을 해야만 사람의 가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거지 정말 고생을 하라고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고생을 해야만 사람이 사는 이치를 알고 불쌍한 이치도 알고 잘못하면 고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

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시대를 쫓아서 딱 만나기. 그러니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여자는 성불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의 생명 남의 아픔 자기것으로 생각 모습은 다르나 마음은 둘 아니게 실천

알고 본다면 내 자들의 종자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종자가 뜻을 모르고 말을 만들고 그러면 다른 종자로 화해서 변하죠. 이 여러가지 문제를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생사를 몰록 다 농고라고 말합니까. 오는 게 없다면 갈 것도 없고 없느냐. 또 일상 생활에서 내가 사는 게 없이는 데 어찌 하는 게 있겠느냐. 준 게 어디 있겠느냐. 받은 게 어디 있겠느냐. 내 자식이 어떻게 따로 있겠느냐. 그럴 누구의 자식이나. 그냥 종자일 뿐이다. 인연에 따라서 만난 인연들만 인연인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는 데에 고통이나 고통이 아니냐가 달려있죠. 내가 짐작을 하고 예지몽지하면 상대 인연은 그게 고소하고 좋아서 더 날뛰거든요. 그러니 짐작을 하지 말고 그냥 관해주시기 해라. 이게 악연으로 태어났다면 원수 같으려고 태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속이 상해서 울고 불고 뭐든 얼마나 고마워 하겠습니까. 좋아서 팔팔 뛰겠지요. 참 이거 별정하게 생각한다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선의 인연으로써 자식을 만났다면 이런다면 그간 효도를 하고 착하게 살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누구든 사람의 인연대로 내가 속 썩는 게 아

는 계기가 되죠.

부처님을 조성해 놓은 것도 우리가 그런 이치나 똑같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인연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집에서 영 나을 줄을 모르거든요. 그걸 물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때 '애, 너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빨리 나오너라.' 하고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견디신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나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또 뭐 관세음보살을 믿어라. 또 뭐를 믿어라 이런다면 그냥 인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의 주장자들을 믿으라는데 어떻게 안믿습니까.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물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주장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만 굳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주인공이 모든 게 공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불변이긴 하지만 주인공이라 하면 자기인 줄 알고 빨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죠. 내가 살아야 공부도 하는 거지 내 몸뚱이가 죽고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또 한철 다시 태어났어도 만나느냐 만 만느냐 그게 또 문제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한도량에 한마음으로서 이렇게 만

그것이 왜 그런 방편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출가한 비구니가 공중에서 살던 사람이어서 아만도 많고 애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려고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나 아난이 다시 물었을때 시대가 변한다는 대로 그런 계율을 바꾸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은데, 뿌리가 똑같듯이 생명이 똑같듯이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다구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종자라면 땅은 그 종자를 기르는 산하대지가 되는데 어찌 그 산하대지를 버리고 종자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돌이키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작다면 아주 작지만 크다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마음들을 그렇게 먹으니 언젠가 자기 몸을 덮고 일어났습니까. 언젠가 든 걸 포괄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활활 털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도 없고 모두가 없게 되죠. 없는 그 가운데서 그냥 여여하게 자유스럽게 배출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공부하는 데는 여자 남자

도 없고 가난과 부자도 없고 높고 굽고도 없고 그래요.

엇그저께 내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느 처사님이 돌아가신 얘기 말입니다. 그 분은 여기 다니시지 않으셨어도 부인이 집에 가면 절에 와서 공부한 이야기를 매일 해드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는 실천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느 때 갈 것도 알고 자식들 괴롭히지 않고 자유스럽게 가셨죠.

한 순간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됐는데도 딱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요. 그런 분한테는 10년이 됐어도 당신은 단 하루도 안됐다고 그러죠. 여기 온지 단 하루도 안됐다고요.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잘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수 억만 명을 죽였어도 수 억만 명을 살리고 또 거기서 체로 쳐서 거르고, 걸러서 열 개를 한데 뭉치려면 뭉치고 스무 개를 한데 뭉치려면 뭉치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집이라면 그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몸뚱이가 내 집인데 내 집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망가뜨리는 것도 마음에 따라서 망가지거든요. 그냥 애만고만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발발발발 하고 가다보면 뭐 기능이 다 막히죠. 막히고 병이 나도 마음에서 고상한 것 마음대로 풀려고 하지도 않구요. 그냥 곧바로 가서 잘라내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죠.

그러니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도 생각 하나 잘하면 모든 것이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라는 건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 집착을 놓는다면 멸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도가 된다구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점차적으로 없애기가 참 어렵긴하죠.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놓아버트세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주려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고통을 주려고 나왔는데 고통을 아무리 줘도 고통을 받지 않거든요.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 악연으로 나왔던 것이 스스로가 자기대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착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다 받고 있으면 상대 인연이 얼마나 고소해하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참 별의별 일이 다 많고 별의별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는데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디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해서 딱한 일이 여간 많지 않죠. '저 사람은 그냥 눈감았다 하면 저절로 그러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될까봐 무서워가 아니라 활활 털고 일어나서, 내 하나가 일어나는데 수만 명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일어나는데 이 우주가 다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몸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몸 속에 들은 생명들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시자를 위해서 내가 꼭 벗어나야만 시자들도 따라서 다 진화되겠구나. 성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구요.

여러분 모두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공부들을 하시라고 열 쓰는데 보이지 않는데서 저절로 상이 내릴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삽입니까.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19일 셋째주 정기법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